

## 전쟁을 거친 공동체의 재탄생과 회복 서사, 〈유충렬전〉

황지현\*

### 〈차 례〉

1. 서론
2.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로 본 〈유충렬전〉
3. 〈유충렬전〉을 가로지른 전쟁, 그 이후의 삶
4.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그동안 〈유충렬전〉을 가족과 국가라는 두 축이 길항하는 작품이자 전자가 우세한 것으로 독해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전쟁의 중요성이 논의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전쟁 이전에 가족을 잃은 유충렬의 비극이 개인적 불행에 한정되었던 반면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이들이 양산되었으며, 이러한 공유 가능한 경험이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장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가 변화해가는 양상을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유충렬전〉은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불행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변화를 보였다. 먼저 개인의 불행이 특수한 상황으로 국한되며, 공동체는 평화로운 상태이다. 유충렬과 고난을 겪는 그의 주변 인물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개인을 표상한다. 다음으로 전쟁이 발발하면서 위기에 처한 공동체가 영웅을 필요로 하고, 유충렬이 등장하는 단계이다. 이때 유충렬과 공동체의 관계는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가족을 잃은 슬픔이라는 공유 가능한 경험, 공동의 적을 향한 분노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시켰다. 이후 가혹한 복수와 집단적 애도 행위를 거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였다. 이 작품에서 전쟁은 평화로운 사회 속에서 소외되었던 개인들이 공동체 전반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었다. 모순된 것으로 지적되어 온 영웅 유충렬의 형상 또한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강사

공동체가 고통을 아는 영웅을 원했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남은 것은 회복이다. <유충렬전>은 전쟁을 표상하는 인물을 향한 가혹한 복수를 하였으며, 남겨진 이들은 집단적인 애도의 장을 열었다. 하지만 이때 애도가 철저하게 회복 가능한 상처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쟁을 딛고 태평성대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에 오래 천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의도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실에 대한 감정 표현을 절제하여 슬픔에 오래 머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비극을 경험한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한 미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전소설 <유충렬전>에만 국한되는 물음이 아니다. 한편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행한 개인의 존재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공동체의 재탄생과 치유의 한 길을 보여준다.

**주제어** 고전소설, 전쟁, 공동체, 회복, 고통

## 1. 서론

행복한 사람은 그 자체로 충만하다. 하지만 불행은 그것을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또 다른 괴로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행복과 구분된다. 불행의 공유 가능성은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공동체의 결속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영웅소설 <유충렬전><sup>1)</sup>은 고립되어 있던 개인의 불행이 전쟁을 거치면서 공유 가능한 고통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리고 있다.

군담소설의 전형적인 작품으로 영웅의 일생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던 <유충렬전>은 일찍이 주제 의식<sup>2)</sup>, 서사 구조<sup>3)</sup>, 향유층을 중심

- 
- 1) 본고의 연구 대상은 <유충렬전> 완판 86장본이며 논의는 이 이본에 한정한다.
  - 2) 성현경, 『<유충렬전> 검토: <소대성전>, <장익성전>, <설인귀전>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2, 한국고전문학회, 1974; 이상구, 「<유충렬전>의 갈등 구조와 현실 인식」, 『어문논집』 34, 안암어문학회, 1995; 김현양, 「<유충렬전>과 가족애」,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신재홍, 「<유충렬전>의 감성과 가족주의」, 『고

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함께 개인적 행복의 추구라는 주제의 양면성을 검토하여, 국가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가 서사의 주된 관심으로 작품을 추동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sup>4)</sup> 이러한 두 지향 가운데서는 다른 영웅소설들에 비해 가족에 더욱 편중되어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sup>5)</sup> 두 축으로 <유충렬전>을 파악한 연구 성과는 서사 구조 전체를 관통하며 길항하고 있는 요소를 포착했다는 점과

전문학교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강상순, 「조선 후기 소설에서 정의에 관한 서술의 몇 방향 : 공정성의 감각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4, 한국고전문학회, 2018; 이정원, 「복수의 서사로 읽는 영웅소설: <유충렬전>과 <조웅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6, 국어국문학회, 2019.

- 3) 박일용은 서사 구조의 추동력에 대해 전반부에서는 관념적 정의와 관련한 추상적인 대결 구조를 개인의 비극적인 삶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해 나가는 형상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중후반부에서는 군담 대결을 중층적으로 연결하여 대결 상황의 긴장감을 높임으로써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하층민의 체험과 소망을 투영하였다고 보았다. (박일용, 「<유충렬전>의 서사구조와 소설사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1993) 윤경미는 유충렬의 고난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고난의 양상을 이별, 방해자의 등장, 방랑으로 세분화했으며 극복의 과정을 조력자와의 연관성 속에서 논했다. (윤경미, 「군담소설에 나타난 고난 극복 과정 연구: <조웅전>, <유충렬전>을 중심으로」, 『기전어문학』 14,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3) 하성란은 유충렬에게 부여된 소명과 그에 대한 태도, 행위를 중심으로 서사 구조를 분석하였다. 소명의 부여와 거부, 수용, 수행, 완성의 단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 귀결을 포착하고자 했다. (하성란, 「<유충렬전>의 서사구조 연구」, 『동방학』 25,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한편 김용기는 작품의 서사가 주인공의 ‘삶의 부침’이라는 맥락 내에서 설명된다고 보고 액운-재난-회운의 구조로써 파악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에 결부된 통과리례적 성격과 함께 개인에게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는 전쟁의 성격을 논했다. (김용기, 「<유충렬전>에 나타난 ‘액운-재난-회운’의 구조」, 『우리문학연구』 56, 우리문학회, 2017.)
- 4)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적 성격』,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73, 80~81쪽.
- 5) 김현양은 작중 가족의 문제가 다른 등장인물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확대·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두드러지는 가족 지향성을 ‘가족주의’라고 호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유충렬전>에서 국가와 가족은 불연속적이며, 가족의 문제가 전면화되고 있다. 하지만 가족애와 인간애를 병치한 <최척전>과는 달리 가족에만 절대화한 것을 <유충렬전>의 한계로 지목하였다. 김현양(2006), 앞의 논문.

함께 다른 영웅소설과 비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작중 뚜렷이 양각되어 있는 전쟁이 연구자의 시야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충렬전>의 갈래를 영웅소설이나 군담소설 혹은 영웅군담소설로 지칭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전쟁과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중요한 의미망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지점이다.

그렇다면 <유충렬전>이 형상화하고 있는 전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작품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전쟁을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는 일상이 파괴되고 고통이 생산되는 현장이다. <유충렬전>에서도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는 작품의 주제 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하지만 유충렬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쟁의 또 다른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외적의 침입과 내란이라는 소용돌이로 백성들의 삶이 황폐화되기 전에 그는 이미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유리결식하는 고단한 처지에 내몰렸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그의 고통은 평화로운 공동체 내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비극에 불과했다. 그런데 전쟁의 발발로 인해 고통이 만연해지면서 유충렬의 비극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양상은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전쟁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본고는 이상의 관점에 입각하여 불행한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충렬전>의 서사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이 낳은 고통의 역설적 기능, 전장에 소환된 영웅 유충렬의 이질적 형상, 상흔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작품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가족과 국가라는 두 축 또는 군담이라는 용어로 포섭되지 않았던 전쟁의 면면들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로 본 <유충렬전>

<유충렬전>은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불행한 개인과 공동체<sup>6)</sup>의 관계에 변화를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전쟁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서사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의 불행과 대비되는 평화로운 공동체

유충렬의 불행은 부친의 유배가 결정되면서 찾아오지만, 정적 정한담이 후환을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친이 멀리 떠났다고는 하나 고루거각(高樓巨閣)에 거처하며 모친의 슬하에 머물고 있던 어린 유충렬의 삶을 뒤흔든 것은 천자가 되기를 도모하는 정한담이 그가 영웅의 운명을 타고난 것을 알고 죽이려 들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저택과 재물은 불길 속에 사라지고 간신히 탈출한 유충렬과 장부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된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긴 이들의 참담한 심정은 남악 형산을 앞에 두고 “산신(山神)도 무정하네”라는 통곡과 한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sup>7)</sup>

문제는 유충렬 모자가 이 세상에 도움을 청할 곳 하나 없다는 점이다. 작품 초반부에 이들의 고통은 공감해주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타인

6) ‘공동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질 의사에 의하여 결합된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사회. 독일의 사회학자 튀니에스가 제창한 사회 유형의 하나로 가족, 촌락 따위가 있다.”고 하였다.(『표준국어대사전』) 이 글에서 공동체는 국가나 가족과 같이 혈연 또는 국적에 의해 결합된 통일체보다는 일반적 사회 구성원 전반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실제 논의에서 공동체는 유충렬이 속한 국가의 구성원에 한정되지만, ‘국가’는 통치 조직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이 글의 논지에 적절한 개념어가 아니라고 보았다.

7) 남악 형산은 자식이 없던 유심과 장부인이 기차치성을 드렸던 곳이다. 유충렬의 입장에서 남악 형산은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에 비참한 처지에 내몰려 남악 형산을 보자 자신의 운명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을 것이다.

이 부재한 채로 독자들에게 제시된다. 고난은 한층 심화되어 수적(水賊)들이 장부인을 납치하면서, 유충렬은 모친과도 이별한다. 선인(船人)들이 그를 물에서 건지고 사연을 묻지만, 갈 길 바쁜 그들은 7세 소년의 참담한 상황에 안타까워할 지언정 그 이상의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sup>8)</sup> 결국 의지할 곳이 없던 유충렬은 수년간 유리걸식하며 목숨만 겨우 연명하게 된다. 이 후에도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는 듯 하지만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와 유충렬을 도왔던 인물들조차 비극을 맞이하는 등 고통은 더욱 심화된다.<sup>9)</sup>

이 단계에서 유충렬과 유심, 장부인, 강희주, 소부인, 강낭지는 고난을 겪는 인물들로 제시된다. 이들은 유충렬의 삶에서 불행 서사를 구축하는 장치로 사용되는 동시에 절박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의 표상으로 기능하고 있다.<sup>10)</sup> 하지만 이들의 고난이 심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세상은 평화롭기만 하다. 따라서 이들의 고난은 개인이 겪는 특수한 상황으로 국한된다. 그들의 주변에 가족의 이산이나 상실과 유사한 경험한 이들이 없다는 점에서도 한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라는 성격이 부각된다. 물론 여러 인물들이 겪는 고난이 나열되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고통일 뿐이다. 이들은 흩어져서 혼자 불행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이며, 유사한 고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연대하지는 않는다.

8) “선인 등이 비감하여 물가의 내려노코 갈터로 가라 하며 비를 썩여 북경으로 뺏히더라” <유충렬전> 40~41쪽.

9) 장부인과 유충렬은 우여곡절 끝에 각각 이처사와 강희주에게 구출되어 일시적인 안정을 찾는다. 하지만 유충렬은 강희주가 정한담과 대립하다가 가문에 화를 입으면서 다시 유랑길에 오른다. 한편 강희주의 부인인 소부인과 딸 강낭지는 노비의 신분으로 잡혀가던 중 탈출하는데, 소부인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강물에 투신하며 뒤따르려던 강낭지는 지나가던 관비에게 구출된다.

10) 이에 대해 박일용은 “유충렬의 모친은 영웅이 아니면서도 가족 관계의 끈을 통해 주인공이 처한 비극적 상황 드러내는 효과를 수행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박일용(1993), 앞의 논문, 276쪽.

## ② 위기로 뺏어진 개인과 공동체의 느슨한 결속

개인의 고통이 공동체와 무관했던 상황은 국가의 위기를 계기로 전환된다. 이전 단계에서 고난을 겪는 개인이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처지였다면, 이번에는 공동체가 파멸의 기로에 서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 그동안 무탈하게 지내던 백성들의 일상은 외적의 침입으로 순식간에 혼란에 빠진다. 이는 “백성들이 난리를 보지 못하였다가 뜻밖의 난을 만나니 산지사방에 피란하니 적연(積燃)도 탕진하고 창곡(倉穀)도 진갈하였다”<sup>11)</sup>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유충렬과 주변 인물들이 겪던 가족의 이산, 유랑결식의 삶이 단숨에 일반 백성들 모두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혼란한 틈을 타 정한담과 최일귀가 천자위를 도모하여 외적과 내통하면서 위기는 순식간에 국운을 뒤흔들 정도로 심화된다. 여기에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유충렬이 개입하면서 공동체와 유충렬이라는 한 개인은 필요와 목적에 기반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는 국난을 타개할 존재로 혜성처럼 등장해 적장의 목을 베고 자신의 이름을 알린 직후 대명국 대사마 도원수의 자리에 오른다.

기로에 섰던 공동체의 입장에서 영웅적 존재를 간절히 필요로 했음은 당연하다. 그동안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던 유충렬은 위기에서 구원할 영웅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공동체와 하나의 운명으로 수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결속력을 들여다보면 피상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유충렬은 전쟁에 개입한 것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국가에 변이 발생하면 나서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적장 정한담은 부친의 원수라는 것이다. 그런데 부친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는 발언은 그가 출정을 결심할 당시에는 정한담과 최일귀가 외적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백룡사를 떠난 것을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sup>12)</sup> 그렇다면 노승 앞에서

11) “이 씨의 백성드리 날이를 보지 못하였다가 뜻밖기 난을 만나니 농상낙야하여 산지사방 피란하니 적연도 탕진하고 창곡도 진갈흔지라” <유충렬전> 60쪽.

천명하는 신자(臣子)된 도리는 어떠한가. 유충렬은 누구도 그를 호출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국가’라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의무감을 바탕으로 개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집단의 구성원들과 구체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들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되어왔다.

이 단계의 유충렬에게 표상된 국가는 신하된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할 대상으로서 관념적인 충 이데올로기 속에 구현된 피상적인 집단이다.<sup>13)</sup> 그런데 이러한 막연한 연결고리는 유충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또한 상황을 타개할 역량을 갖춘 인물을 원한 것이지 유충렬이라는 특정한 개인이 소환될 이유는 없었다. 자발적으로 구원자로 전장에 뛰어들 유충렬과 영웅의 출현을 간절하게 바랐던 공동체의 관계는 모호하고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 ③ 동일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강한 연대감

천자와 유충렬, 백성들은 모두 정한담과 외적을 물리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가에 대한 ‘충’과 부친의 원수를 갚는다는 ‘효’,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한다는 ‘의’가 호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구심력은 미약한 상태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국난을 수습하면서 신분이나 지위를 넘어서서 슬픔과 분노를 공유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공동의 복수를 해나가는데, 이

12) 김현양은 비록 유충렬이 위기에 처한 황제를 구한 뒤 “아버 원수를 갚으러 왔다”고 했으나 그의 영웅적 행위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에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승과의 대화를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비록 가족의 문제에 비해 축소되어 있다고는 하나 국가의 문제 또한 서로의 가치를 내세우며 맞서는 길항적 관계로 교직되어 있다고 보았다. 김현양(2006), 앞의 논문, 329~331쪽.

13) 유충렬은 백룡사에서 국난을 감지하고 근심에 싸이는데 노승이 연고를 묻자 “국변이 이러하니 엿지 근심이 업시리요”라고 대답한다. <유충렬전> 73쪽.



과정에서 결속력에 변화가 발생한다.

이전까지 가족의 상실과 이산의 아픔은 유충렬 그리고 그의 주변 인물들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런데 다른 가족의 이산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이었던 천자가 이번에는 직접 이산을 경험하고 더 큰 상실을 눈앞에 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유충렬과 천자 사이에 군신이라는 현격한 격차가 있을지언정, 가족을 잃는 아픔과 남겨진 자의 고통이라는 공통분모가 생긴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가족을 잃은 아픔을 토로하는 천자를 비롯해 태후와 황후, 태자의 모습에서 시정(市井)의 백성들과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sup>14)</sup> 가족의 상실이라는 점에 있어서 거리감을 축소하는 서술 방식은 그들과 유충렬의 가족 사이에 존재하던 지위와 신분의 차이를 소거함으로써 천자와 유충렬을 동일선상에 놓게 한다.<sup>15)</sup>

14) 천자의 가족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비탄을 발화하는 것은 태후인데, 자신을 구한 유충렬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장면에서도 권위를 찾아볼 수 없다. “전성의 무삼 죄로 빅발노구 흥안소부 어린 손자 압세우고 되놈의게 잡퍼와서 혼칼 쫓티 다 죽으니 북방천리 멀고 먼 질의 무주고혼 되단 말가. 피골상연 이니 몸은 되놈의게 자식 일코 청춘 소부 니 메나리 되놈의게 낭군 일코 혈혈단신 니 손자 되놈의게 아비 일어 만리 호국 험흔 싸의 뉘 보랴고 예 왔다가 세 몸이 혼 몸되야 자긱 손의 죽게 되니 천만련을 지년간들 이런 변을 다시 불가. 광디흔 천지간의 흉악하고 불칙흔게 우리 서이 팔자로세. 도적의게 황성 일코 우리 아달 정흔담을 피햐야 복문으로 도망터니 죽엇난가 살어는가. 혼빅이나 동동 써서 늘근 어미 죽난주를 귀신이나 알연만은 창망흔 구름 속의 사름 소리 썩이로다...무죄흔 세 목숨이 창검 쫓티 달여쁘니 혼 썩 속전흔 여주오” <유충렬전> 118~119쪽.

15) 박일용은 이에 대해 “황태후의 이러한 모습은 황실의 권위와는 무관한, 전쟁의 고난을 비통해하는 여염집 아낙의 모습이다. 독자들은 이들의 이러한 개인적인 모습을 통해서 황실과 황제를 권위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적인 존재로 느낄 수 있으며, 유충렬과 황제 사이의 관계 또한 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았다. 박일용(1993), 앞의 논문, 281~282쪽. 한편 김현양은 그 내용에 주목하고 황제와 황후의 발화에서 가족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은 이념이나 논리를 넘어서는 정서적인 연민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바탕에 가족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현양(2006), 앞의 논문, 321~322쪽. 본고는 이들이 공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공감 가능한 지점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술자는 더 나아가 천자 가족의 이합을 지켜보는 유충렬의 심정을 포착하는데, 여기에는 공감과 연민, 원망이 공존하고 있다.<sup>16)</sup> 이렇게 천자와 신하, 백성들이 동일한 경험으로 연결되자 공동의 슬픔과 분노를 확인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복수의 정당화로 귀결된다.<sup>17)</sup> 정한담의 처형 소식에 모여든 백성들이 “부모 잃은 사람은 부모 원수를 갚아주고 자식 잃은 사람은 자식 원수를 갚아주자”<sup>18)</sup>며 달려들어 폭력적 복수를 벌이는 것은 사적 복수의 공유가 공적 복수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이전 단계가 명분을 기반으로 한 느슨한 결속력으로 맺어졌다면, 이제는 가족의 상실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슬픔과 분노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악인을 처벌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졌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개인이 겪은 슬픔과 분노를 토로하

16) 유충렬은 황성을 회복한 직후 폐허가 된 옛 집터를 찾아 부모를 그리워하며 통곡하는가 하면, 천자와 태후, 황후, 태자의 눈물겨운 재회를 보고는 잃어버린 가족을 떠올리며 비탄에 잠긴다. “전일 사던 집터를 가보니 웅장하고루거자 빈터만 나머짜라. 실픈 마음 진정하고 쥘문을 횡하야 도라셔니 부모 심각 총양 업셔 나가는 질리 강강하야 참을 지리 업난지라. 굶주 버셔 싸의 늦코 가슴을 두다리며 디성통곡하난 말리…” <유충렬전> 102쪽; “나난 포판의 잇난 부친 죽엇난가 살앗난가. 회수정의 모친 일코 만리북방의 부친 일코 영능천수의 안히 이러쓰니 사라셔 무엇하며 죽어도 악급잔코 도로여 악귀가 될지라.” <유충렬전> 124~125쪽.

17) 이정원은 <유충렬전>과 <조웅전>의 복수 서사에 주목하고 영웅소설의 복수 서사에 내재된 윤리성, 공공성, 물리성을 짚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독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다만 두 작품을 비교하고 <유충렬전>에서 복수의 과잉은 유충렬의 복수가 상대적으로 사적 성격을 띠며 천자와의 관계도 복잡하기에 공공의 적으로 표상되는 이를 향한 과잉 복수가 필요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정원(2019), 앞의 논문.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수용하여 크고 작은 사적 원한들의 결합이 공공성을 띠는 점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수의 경험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그 이전에 존재한 공유할 수 있는 비극적 경험에서부터 유대가 이미 형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8) “부모 일은 스투은 부모 웬수 굶프주고 자식 일은 스투은 자식 웬수 굶프주시…네 이놈 정훈답야, 너 안이면 니 가장이 죽어쁘며 니 자식이 죽을손야.” <유충렬전> 136쪽.

고 함께 비탄에 잠기는 장이 마련됨으로써 이전보다 단단한 연대감이 발생한 것이다.

#### ④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이제 악인으로 지목된 정한담을 징치하고 연대가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된 이들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위기에 빠졌던 나라를 구하고 악인을 상대로 격렬한 복수가 자행된 후 주변을 돌아보면 황폐화된 일상이 눈에 들어온다. 남겨진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자 해야만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삶을 복구하는 것이다. 생이별한 이산가족은 다시 만나야 하며, 회복할 수 없는 상실에 대해서는 위로가 필요하다. 복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치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정한담의 처형 후 유충렬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친 장부인과 장인 강희주, 부인 강낭자의 존재는 해결해야 할 미진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천자와 태후가 그의 말을 듣고 함께 슬퍼하고 유충렬은 그 길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떠난다. 그는 먼저 강희주와 함께 갇혀있던 조낭자, 포로로 잡혀갔던 여인들을 구출하고 돌아오던 길에 예전에 모친과 이별했던 회수 강가를 지나다가 제를 올리는데, 그곳에 모인 이들은 장부인을 위해 슬퍼하고 유충렬을 안타깝게 여기는 동시에 자신의 상실을 돌아보며 함께 눈물을 흘린다. 이후 <유충렬전>은 완만한 회복을 보여준다. 죽은 줄 알았던 모친과 재회하고 강희주와 장부인의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다시금 강낭자와 만나 소부인의 제를 올린 후 구출한 포로들과 함께 황성으로 돌아와 모든 살아남은 이들이 눈물의 상봉을 이룬다.<sup>19)</sup>

19) “이찌 장안 만민이 남저의 잡퍼갓던 떠나리며 찢이며 동성더리 본국의 도라온단 말을 듯고 호산더 십니 들의 빈틈업시 마조나와 각각 만나 옥수 나삼 부여잡고 기루던 그 경공 못니 질겨하야 우름소리 우심소리 반공의 뒤식기어 호산더가 썬나간 듯 윈 슈를 치사하고 장부인을 치사하난 소리 낭자하야 요란하고...” <유충렬전> 167쪽.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들을 데리고 돌아온 유충렬을 향해 천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치하하고 그의 공덕을 칭송한다. 더불어 유충렬 가족의 재회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쁨으로 치환되고 있다. 작품은 공멸의 기로에 섰던 공동체가 태평한 시절로 나아가면서 마무리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정립된 사회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전쟁을 거친 공동체는 고립된 개인의 불행이 산재했던 이전과 달리 공유할 수 있는 슬픔과 기쁨을 기반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다.

### 3. <유충렬전>을 가로지른 전쟁, 그 이후의 삶

#### 1) 그의 고통에서 우리의 고통으로

전쟁이 삶을 황폐화시키고 고통을 양산한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유충렬전>은 작품 초반부에서부터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sup>20)</sup> 전쟁을 거치면서 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 남겨진 상흔은 작품 전반에 걸쳐 비감을 형성하고 있다.<sup>21)</sup> 그런데 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쟁은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동시에 내부의 결합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여기서는 <유충렬전>이 형상화하고 있는 이러한 전쟁의 역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전쟁 이전의 공동체를 들여다보자.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로운 일상

20) 박일용은 유침의 논거가 빈약한 것에 대해 당대의 왕권과 전쟁에 대한 민중적 소설 향유층의 소박하면서도 진실성이 담겨있는 반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일용(1993), 앞의 논문, 273쪽.

21) 신재홍은 작중에 드러나는 감정이 기쁨이나 웃음보다는 원망, 분노, 슬픔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학은 미미하고 비감만이 충만한 것이 작품의 미적 특질”이라고 보았다. 신재홍(2010), 앞의 논문, 178~182쪽.

을 들추면 곳곳에 고통 받는 개인들이 산재해있음을 알 수 있다. 유충렬과 그의 가족이 겪던 고난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불행한 개인의 표상이기도 하다. 그 시절의 고난이 유충렬 가족에게만 국한되었을 리는 없다. 작중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떠나 유리결석하였을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길을 나섰다가 도적들의 손에 가족을 잃어 홀로 남겨지기도 했을 것이다. 유충렬과 장부인, 소부인, 강낭자는 평화로운 시기에 공동체의 무관심 속에서 소외된 불행한 누군가의 얼굴들이다.<sup>22)</sup> 그런데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된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은 평화롭기만 하다. 고립된 불행은 이들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가족과 분리되어 정서적인 울타리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인물의 주변에는 유사한 일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측은지심(惻隱之心)과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강희주와 소부인이 유충렬을 안타깝게 여기고 위로하는 것은 유심과의 친밀함, 어린 유충렬의 처지에 대한 연민의 발로이지 그가 겪은 일련의 상실과 그에 따른 고통을 알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았을지언정 그의 고통은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

동일한 양상은 장부인, 강낭자의 경우에도 확인된다. 장부인은 온갖 고난을 겪다가 겨우 탈출해 우연히 먼 친척인 이처사 부부에게 의탁하고 위로받는다. 그런데 이처사 부부가 장부인처럼 가족을 잃고 떠돌거나 목숨을 걸고 탈출한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강낭자는 지나가던 관비에게 구출되는데, 관비라 한들 강낭자처럼 눈앞에서 모친이 자결하고 오갈 데 없이

22) 이들은 한순간 속식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기에 타인의 조력이 절박하게 필요한데 도움을 받을 경우 목숨을 부지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소부인의 경우처럼 파국을 맞게 된다.

남겨진 경험을 하지는 않았다. 누군가 이들의 아픔에 연민을 느끼더라도, 그것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공동의 고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유충렬을 비롯한 그의 주변 인물들이 겪는 일련의 비극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비극으로 국한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단번에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전쟁의 발발이다. 유충렬은 가족을 잃어 비통해하는 천자와 태후, 황후, 태자 그리고 재회한 그들의 눈물어린 기쁨을 목도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떠올린다. 그가 천자 가족의 이합에서 자신의 가족을 겹쳐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천자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군신이라는 형식적이고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같은 괴로움을 아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관계를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힘이 된다. 이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전쟁의 기능은 바로 그러한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충렬전>은 유충렬과 천자를 공동의 경험으로 묶은 직후 여기서 나아가 한 이름 없는 노인을 등장시킨다.

“삼자일녀를 나하노코 귀이 질녀 제 몸이 장성터니 만고역적 정훈담이 도성을 쳐파하고 용상의 뉘피 안져 자충천자하고 싱민을 도탄홀제 소인의 자식 둘을 군사의 충슈호야 전장의 백오다가 자식 혼나를 죽여찌니 옥황이 남경을 도오사...장군임의 심을 입어 명진군스는 혼나도 상치 안코 와것기로 소인의 뜻터 자식이 사라나서 이 손자를 두어쁘니 이놈은 장군임 자식과 다르미 업난 지라. 이제난 소인이 죽어도 빅골엄토흔 자식이 잇고 선형홍화 밧들손자 잇사 오니 이난 모도 다 장군임의 덕이오미 소인이 죽을 날이 머지 안이흐온지라. 다만 술 혼잔을 장군님 전의 올이나니 만세 무량호옵소서. 이제 죽어도 여흔이 업실가 호야 손자를 이끌고 왔난이다.” <유충렬전> 131-132쪽.

그리고 노인의 말을 들은 유충렬과 유십, 천자, 태후, 황후, 태자와 장수

들은 “일심이 비감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고 노인을 위로한다.<sup>23)</sup> 신분과 지위를 초월한 공동의 경험이 전면화된 것이다. 이제는 가족을 잃는 슬픔이 무엇인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이미 같은 경험을 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유충렬과 장부인, 소부인, 강낭자의 처지를 알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던 이들은 남의 일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슬퍼한 것이었다. 하지만 손자를 이끌고 유충렬 앞에 나아와 술잔을 권하는 노인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슬퍼하는 것은 나의 일이자 우리의 일이다.

<유충렬전>의 전쟁이 양산한 무수한 고통은 역설적으로 ‘우리’라는 연대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새로운 연대 위에 쌓아가는 공동체는 전쟁 이전과는 다른 결속력으로 사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은 노인이 자신의 손자를 “장군님의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타인과 가족이라는 경계가 자연스럽게 허물어진 이 말을 통해 작품 말미에 간략하게 서술되는 태평성대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추정할 수 있다.

## 2) 전쟁에서 ‘우리’가 원한 영웅의 형상

흥미로운 것은 전장을 가르며 호출된 영웅 유충렬이 바로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 하늘이 점지한 신이한 능력을 지닌 구원자와 온갖 불행을 짊어진 범속한 인간이라는 양면성이 전혀 통합되지 않은 채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4)</sup> 여기서는 분석의 층위를 달리하여 작중 유충렬의 형상에 내재된

23) “이찌 원수며 주부와 황후 티후 티자며 제중이 이 말을 듯고 일심이 비감하야 낙누하며...” <유충렬전> 132쪽.

24) 이 지점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최근의 논의로 송혜란은 <유충렬전>의 이러한 모순적 형상이 여타의 영웅소설들과 달리 유충렬의 ‘개인성’에 주목한 결과이며, 영웅되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독자와 유충렬 간에 유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송혜란, 「<유충렬전>에 나타난 영웅에 대한 인식 연구:

기대 심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태몽으로 등장하는 일월선관과 청룡, 천계의 존재였다는 전생담은 모두 그가 영웅이 될 운명을 타고 났음을 드러내는 장치들이다. 애초에 유충렬에게는 전장에 나아가 공을 세우는 영웅의 길을 걷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하지만 그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받아들여가는 과정은 <유충렬전>에서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sup>26)</sup> 유충렬은 몸에 원수(元帥)라는 직위가 새겨진 채 태어났지만 고통에 차 삶을 포기하려할 때 자신에게 부여된 운명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던 그가 국난이 일어났음을 깨닫자마자 전장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어떠한 중간 과정도 없이 “하늘이 나를 내신 것은 다 남경을 돕기 위함”<sup>27)</sup>이라며 그에 맞는 행동을 해나간다.

준비를 마치고 전장에 등장한 유충렬의 모습은 “사람은 천신이요, 말은 비룡이라”<sup>28)</sup>라는 구절에서 선명하게 제시된다. 일광투구에 용인갑을 입고 신장을 호령하며 홀로 적진 억만 병을 순식간에 무찔러 무인지경(無人之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는 하늘이 내려준 영웅성을 체현하고 있다. 이는

---

수용적 관점에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9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165~166쪽 참조) 하지만 본고는 유충렬의 모순적 형상이 고통을 이해하는 영웅이기를 바라는 독자들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기존의 논의에 보다 동의하는 한편 이러한 체험적 공감을 통한 공동체의 재탄생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본다.

25) 그는 날 때부터 북두칠성과 대장성, 삼태성이 몸에 각인되어 있고 ‘대명국 대사마 대원수’라고 쓰여 있기까지 했다. 강낭자와 이별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내세길이라도 닦겠다며 찾이간 절에서 만난 노승은 그를 보자마자 유상공이라고 부른다. 용왕의 명을 받은 거북이가 물으로 가져온 옥함에는 ‘남경 도원수 유충렬’이라고 새겨져 있다.

26) 정인혁은 유충렬이라는 인물에게서 각성이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인혁, 「<유충렬전>의 인물 구성과 서술적 특성」, 『한국고전연구』 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566~567쪽 참조)

27) “하늘은 나를 너시고 용왕은 너를 널 제 그 쓰시 모도 다 남경을 돕게 하리라” <유충렬전> 77쪽.

28) “스름은 천신이요 말은 비룡이라.” <유충렬전> 77쪽.



잇따른 불행한 사건에 휘둘리며 통곡만 하던 무력한 모습과 상충하며, 자신의 운명과 자아상을 통합해가는 과정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어색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의 부재는 ‘어떤 영웅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애초에 영웅의 운명을 타고난 인물에 대해 무력감을 강조하는 모순적인 서술은 전쟁의 한 가운데 유충렬이 소환된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공동체가 간절하게 필요로 한 영웅이다. 상충되는 두 면모는 뒤집어 말하면 그것들을 모두 지닌 인물이 필요했다는 것이 된다.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가 요청한 영웅은 홀로 전세를 역전할 신이한 능력을 지닌 동시에 불행과 고통을 아는 인간이다. 중반부까지 이어지는 유충렬의 고난은 불행 서사의 집약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극단적이다.<sup>29)</sup> <유충렬전>에서 소망의 실현태로서 영웅의 형상은 고난을 겪는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존재이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에서 굽어보고 측은지심을 느껴 구원하는 전능하고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는 영웅을 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작품 외부에 있는 향유층들의 욕망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는 고통을 경험하는 인물로 유충렬을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영웅으로서 예정된 운명과 그의 자아상이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일찍이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고 어린 시절부터 정체성으로 삼아 성장해 갔다면 갖은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의 내면에 깊은 비탄이 자리 잡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늘이 점지한 신이한 영웅이라는 운명과 함께 갖은

29) 부친을 잃고 하루아침에 집이 불타는가 하면 모친과도 이별한다. 구걸하며 목숨을 연명하다 겨우 구조되지만 이번에는 장인의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부인과도 만남을 기약할 수 없이 헤어져야 했다. 한 명의 인간에게 연이어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극의 과잉이라 할만하다.

불행 속에 고통 받는 범속함이 통합되지 않아 발생한 어색함은 공동체가 원한 영웅이 상충하는 두 면모를 모두 지녀야만 한다는 요청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3) 전쟁에 대한 부정과 선택적 슬픔을 통한 회복

전쟁이 많은 고통의 상흔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유충렬전>의 등장인물들은 전쟁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물음을 피할 수 없다. 앞서 2장에서 공동의 복수와 위로를 통한 회복의 과정이 존재함을 짚은 바 있다. 이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회복의 방식과 그 의미를 검토하겠다.

<유충렬전>에서 정한담에게 가해지는 복수는 집단적인 참여와 함께 과도한 폭력성이 특징이다.<sup>30)</sup> 이러한 참여적인 복수 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유와 정당화에 대한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서술자는 유충렬과 천자를 가족의 상실이라는 고통으로 묶는데 이어 한 노인을 등장시킴으로써 “무엇을 잃었는가” 혹은 “잃을 뻔 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들은 신분이나 계층, 입장이 다르지만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 연대를 형성하면서 복수로까지 나아간다. 신분 질서가 공고한 사회에서 군신민(君臣民)을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로 규정하는 것은 상실에 대한 공동의 회복이 요청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며, 복수는 그 첫 단계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상하” 없이 “장안 만민”들이 몰려들어 동참하고 있다.

나졸이 달여드려 혼담의 목을 띠어...웨여 왈 “이바 빅성더라. 만고역적 정헌담을 오날날노 베허려가니 빅성덜도 구경허라.” 하며 소리하고 나을적의 성중성의 빅성더리 혼담 죽이려간단 말을 듯고 남녀노소 상하업시 그 늬의 간을

30) <유충렬전>을 복수의 서사로 독해한 이정원의 논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정원(2019), 앞의 논문.

니여 먹고저 햏야...부모 일은 슝은 부모 웬슈 굽꾸주고 자식일은 슝은 자식 웬슈 굽꾸주시...엇던 슝은 달여드려 혼담을 호령햏고 엇더흔 녀인더른 혼담의 상토 잡고 신쑤 버셔 양 귀밧츨 썩썩 치며 네 이눔 정햏담아 너 안이면 니 가장이 죽어햏며 니 자식이 죽을손야...사지를 난와노니 장안 만민드리 벌 제갓치 달여드려 점점이 올려노코 간도 니여 씹어보고 살도 베혀 먹어보며... <유충렬전> 135~137쪽.

그런데 공동의 분노로 표출되는 복수의 행위를 보면, 인육을 씹어 먹는 등 잔혹한 수위를 보인다. 이러한 분노의 과잉은 복수의 대상이 되는 정한담이 작품 전체에서 일관되게 전쟁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가 유심과 조정에서 대립한 것은 강성한 외적에 대한 대응책에 있어 다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인데, 외적을 쳐야한다는 정한담과 달리 유심은 “왕실은 미약하고 외적은 강성하니 지는 범을 찌름 같다”고 하면서 가련한 백성들의 목숨을 생각하더라도 전쟁은 불가하다고 말한다.<sup>31)</sup>

전쟁의 발발 자체를 저지하려한 유심, 전쟁을 종결시킨 유충렬 부자의 대척점에 정한담이 있는 것이다. 작품 내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전쟁을 일으킨 악인으로서의 정한담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다. 따라서 그에 대한 폭력성의 과잉 표출은 악인을 징치하는 것 이상으로 전쟁 그 자체에 대한 집단적인 분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충렬전>에서 전쟁은 정한담이라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그를 도륙함으로써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받은 이들의 ‘전쟁’을 향한 복수가 완

31) 이 대목에서 그들의 발언만 놓고 보면 정한담을 악인으로 치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천자 앞에서 왕실과 외적을 각각 계란과 바위에 빗대는 유심의 말은 과도하기까지 하다. 한편 유충렬에게 사로잡힌 정한담이 공손한 태도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천자위를 노리던 욕망에 찬 인물 형상과는 어긋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악인으로서의 정한담을 설정하고 무수한 피해를 양산하는 전쟁과 그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데 집중한 것이지 구체적인 욕망과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상을 제시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성된 것이다.

하지만 피의 복수를 한다 한들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운 좋게 가족들이 재회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이들은 전쟁을 거치면서 가족과 영결해야만 했다. 그리고 남겨진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상실에 대한 위로이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유충렬이라는 한 개인이 자신의 모친을 위해 올리는 위령제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성격을 띤다. 초반에는 유충렬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타인의 눈물을 자아낸다. 하지만 “서로 보고 슬피” 울다가 그 중에서 환과고독(鰥寡孤獨), 서러운 사람들이 방성통곡을 한다고 되어 있다. 제사의 초반에는 유충렬의 슬픔에 공감하는 눈물이었다면, 점차 자신의 처지와 상실을 돌아보고 그것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 데 모인 것이다.

이제 빅포장 너외간의 귀경한 난 슝터리 원슈의 축문 외오며 우난 소리를 드르니 철석간장 안이어든 뉘가 안이 낙누흐며 초목금슈 안이어든 언의 뉘가 안이올이. 좌우 방빅 수령더른 뿌리난이 눈물이요 각읍 군수 현령더른 서로 보고 실피우니 그 중의 환과고독 서룬 슝은 방성통곡한 난 소리 강천이 창망하야 일월이 무광하고 운무자옥하야 천지 나직하다. <유충렬전> 149~150쪽.

백사장에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모여 고통스러운 상실을 함께 나누면서 죽은 이와 남겨진 사람 모두를 위로하는 장으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작품이 4면에 걸쳐 유충렬의 비탄에 찬 제문(祭文)을 싣고 있는 점과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절절한 슬픔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작자가 의도적으로 이 장면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뜻한다. 그런데 장부인은 사실 죽지 않았다. 유충렬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몰랐을지언정 작자와 독자들은 장부인이 이처사를 만나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작중 상실에 대한 슬픔이 극도로 노출되는 천자 가족의 경우 또한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죽지 않고 재회했다. 더군다나 죽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애도에 집

중하는 것과 달리 정작 물에 빠져 자결한 소부인의 위령제가 한줄 언급에 그치고 있어 온도 차이가 크다는 점은 의문스러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소부인이 주인공 유충렬의 모친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부인과 무게감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독자가 장부인과 소부인의 생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장부인을 위한 제문을 4면에 걸쳐 수록하는 한편 소부인에 대해 “제를 지냈다”고 언급하는 데 그치는 점은 주인공의 모친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더군다나 소부인은 강낭자와의 혼인으로 유충렬의 빙모(聘母)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간결하게 처리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유충렬전>에서의 애도가 철저하게 산 사람, 회복 가능한 상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비록 옥황과 용왕, 선녀, 전생담, 도술 등 기이한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충렬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는 명확하다. 절망에 빠져 강물에 투신한 소부인은 돌아오지 않는다. 작중 고전소설에서 종종 등장하는 재생담이나 환생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삶과 죽음의 간극이 극복될 수 없음을 분명하다.<sup>32)</sup>

이 작품은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빗겨나가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앞서 확인한 바 있는 이름 없는 노인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다. 그는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잃었지만 손자를 보아 자신의 핏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임에 안도하며 여한이 없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서 죽은 아들을 향한 비탄보다는 살아남은 아들과 손자에 대한 기쁨이 더 부각된다. 재회가 전제되어 있는 장부인에 대한 비탄, 천자가족의 애타는 심정이 전면적으로 표출되는 한편 회복할 수 없는 상처에 대한 슬픔을 축소하는 서술은 <유충렬전>에서 어떤 슬픔이 허락되고 있

32) 소부인은 꿈을 통해서나 혼령의 모습으로도 등장하지 않는다.

는가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산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에 쌓인 슬픔을 토로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함께 눈물을 흘리는 대목을 길게 삽입하였다. 하지만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향한 긴 애도와 비탄에는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전쟁을 딛고 태평성대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에 오래 천착해서는 안 된다. <유충렬전>은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한 비탄과 애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이후 이어지는 재회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한편 의도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실에 대한 감정 표현을 절제하여 슬픔에 오래 머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유충렬전>은 복수와 위로의 과정을 거쳐 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작중 복수는 공동의 연대를 발판으로 잔혹한 폭력성을 발휘하는데, 그것은 정한담이라는 한 인간을 전쟁 그 자체와 동일시하면서 전쟁에 대한 복수를 완성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위로 또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회복할 수 없는 상실을 의도적으로 조명하지 않으므로써 산 사람을 향한 위로와 공동체의 내일을 모색하는 서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결론

고통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물음은 그 후에 온다. 고통의 경험을 안고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유충렬전>은 개인의 불행과 전쟁을 통한 집단적 비극을 교차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내고자 하였다. 본고는 그동안 <유충렬전>이 가족과 국가라는 두 축이 길항하는 작품이자 전자가 우세한 것으로 독해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전쟁의 중요성이 논의되지 못했

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작중 유충렬을 비롯한 그의 주변 인물들이 겪던 고난은 전쟁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가 모두 ‘아는’ 고통이 되었다. 물론 전쟁이 없었다면 영웅으로서 유충렬의 행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전쟁은 공동의 경험을 낳고 천자와 유충렬, 남녀노소를 불문한 일반 백성들 모두를 동일한 경험을 한 인간으로 묶어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은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감적 이해와 구분된다. 그런 점에서 전쟁 이전에 가족을 잃은 유충렬의 비극이 개인적 불행에 한정되었다면, 전쟁을 통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이들이 양산되었다. 그리고 공유 가능한 경험, 공통의 적을 향한 분노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가혹한 복수와 집단적 애도 행위를 거치면서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애도 행위는 철저하게 산 사람과 복구 가능한 상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늠케 한다. 복구할 수 없는 슬픔에 묶여 있는 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유충렬전>은 선택적인 슬픔의 허용을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비극을 경험한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한 미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전소설 <유충렬전>에만 국한되는 물음이 아니다. 한편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행한 개인의 존재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공동체의 재탄생과 치유의 한 길을 보여준다. 공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집단적 복수와 애도, 선택적 슬픔의 조명은 통속적인 서사를 구성하는 요소인 동시에 당시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과 답안이었을 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이라는 점에서 해당 작품이 선택한 방식에도 유의미한 지점이 있다. 하지만 슬픔의 선택적 허용이 감정의 효용을 따져 경제적으로 배치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전쟁 이전

에 외면받고 소외당했던 고통스러운 개인들의 문제가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변주되었을 가능성, 즉 집단의 회복을 위해 개개인의 불행과 고통이 선택적으로 인정 또는 배제당하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러한 회복의 노선도 일정한 한계를 내재할 수밖에 없다. 물론 회복의 방식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빠른 회복에 대한 갈망은 작중 인물들 나아가서는 작품의 향유층들에게 현실적인 요청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상 전쟁을 경험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독해한 <유충렬전>은 다채로운 면면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오늘날에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물음을 던진다.



## 참고문헌

<유충렬전>완판 86장본.

- 강상순, 「조선후기 소설에서 정의에 관한 서술의 몇 방향: 공정성의 감각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4, 한국고전문학회, 2018, 61~87쪽.
- 김용기, 「<유충렬전>에 나타난 ‘액운-재난-회운’의 구조」, 『우리문학연구』 56, 우리문학회, 2017, 107~130쪽.
- 김현양, 「<유충렬전>과 가족애」,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311~334쪽.
- 박일용, 「<유충렬전>의 서사구조와 소설사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1993, 139~175쪽.
- 성현경, 「<유충렬전> 검토: <소대성전>, <장익성전>, <설인귀전>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2, 한국고전문학회, 1974, 35~64쪽.
- 송혜란, 「<유충렬전>에 나타난 영웅에 대한 인식 연구: 수용적 관점에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9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145~171쪽.
- 신재홍, 「<유충렬전>의 감성과 가족주의」, 『고전문학과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169~193쪽.
- 윤경미, 「군담소설에 나타난 고난 극복 과정 연구: <조웅전>, <유충렬전>을 중심으로」, 『기전어문학』 14,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3, 127~161쪽.
- 이상구, 「<유충렬전>의 갈등 구조와 현실 인식」, 『어문논집』 34, 민족어문학회, 1995, 57~93쪽.
- 이정원, 「복수의 서사로 읽는 영웅소설: <유충렬전>과 <조웅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6, 국어국문학회, 2019, 169~197쪽.
- 정인혁, 「<유충렬전>의 인물 구성과 서술적 특성」, 『한국고전연구』 2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559~582쪽.
-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적 성격』,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73, 1~156쪽.
- 하성란, 「<유충렬전>의 서사구조 연구」, 『동방학』 25,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139~175쪽.

## ABSTRACT

The Narrative of the Rebirth  
and Recovery of a Community Through War,  
*“Yuch’ungnyŏlchŏn”*

Hwang, Ji-hyun

This study noted that the importance of war has not been discussed while *“Yuch’ungnyŏlchŏn”* has been supported by two axes, family and state, and is read in a way that the former is more dominant. That’s because if Yu Ch’ungryŏl’s tragedy of losing his family before the war was limited to personal unhappiness, people who lost their family members and had to leave their homes through the war were mass-produced, and this shared experience became the driving force to move toward a new community. To analyze this in detail, in Chapter 2,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ere examined step by step. *“Yuch’ungnyŏlchŏn”* showed a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happy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s the narrative progressed. First, individual unhappiness is limited to a special situation, and the community is in a peaceful state regardless of it. Yu Ch’ungryŏl and the people around him who suffer represent individuals in desperate situations. Next, as war breaks out, a community in crisis needs a hero, and it’s the stage where Yu Ch’ungryŏl appears. At this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him and the community remains superficial. However, the shared experience of losing a family member and anger toward a common enemy naturally strengthened community ties. Later, a new community was born through harsh revenge and collective mourning. In this text, war created the possibility that individuals who were marginalized in a peaceful community could unite. The shape of the hero larval sequence,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contradictory, can also be explained in that the community wanted a hero who knew what suffering was. Now, after the war, what is left is recovery.

"*Yuch'ungnyŏlchŏn*" took harsh revenge against the person representing the war, and those left mourned the collective. However, at this time, it was confirmed that mourning was centered on thoroughly recoverable wounds. In order to overcome the war and enjoy a peaceful period, one must not focus too long on irreparable damage. This text is wary of staying in grief for a long time by deliberately restraining emotional expression of irreparable damage. The question of how a community that has experienced tragedy can seek a healthy future is not limited to classical novels. On the other hand, the existence of unfortunate individuals in social blind spots also has great implications. In that respect, this text shows a path to community rebirth and healing.

**Key Words** classic novel, war, community, recovery, pain

논문투고일: 2024.10.10.

심사완료일: 2024.11.06.

게재확정일: 2024.11.17.